

.....  
왜, ‘목회자만, 꿈꾸는 교회’ 이어야만 합니까?

## ‘성도가 꿈꾸는 교회’ 는 안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해석이 있다고 믿진 않습니다.

우리는 설교의 중요함을 압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모든 말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성도가 꿈꾸는 교회’를 통해  
선취(先取)되어야 합니다.

제9회  
‘이런 교회  
다리고 싶다’  
세미나  
[자료집]

- 일시 | 2014년 5월 25일 주일 오전 11:00
- 장소 | 복사골문화센터
- 주관 |  **에인교회**
- 주최 | 건강한작은교회연합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이하 '이교다 세미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또는 '익명화 과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초대해 한국교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모색하고 공론하는 장이다. 이교다 세미나는 한국교회 내의 문제들로 제도적 교회를 떠난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그 문제들은 '교회의 교권사제주의', '목회세습', '물질지향의 기복신앙', '소통부재', '불투명한 재정운영', '무리한 건축', '사회참여 외면' 등이 있다. 이교다 세미나의 목적은 위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익명의 그리스도의 회복을 돕도록 관계 기관 및 건강한 교회를 연결시켜주는데 있다.

(자세한 내용은 p.45 참조)

2014.5.25.(주) 오전11:00

## “성|도|가|꿈|꾸|는|교|회|”





## 자료집 목차

### ■ 1부 [성도가 꿈꾸는 교회]

: 오전11:00-12:30/2층 아트홀

_진행순서	1부 순서 안내	P.6
_찬양/악보	‘교회여 일어나라’ 외3곡   예인교회 찬양팀	P.7
_영상	‘익명의 그리스도인’	P.11
_소논문	‘익명의 그리스도인?’	P.13
_낭독기도문	‘꿈을 허락받은 성도들로	P.17
_인터뷰설교	‘성도가 꿈꾸는 교회’   이명희 김근주 양희송	P.20
_알립니다	광고/2부 일정안내   정재준	P.22

### ■ 점심시간 [건강한작은교회연합 소속교회와 단체 소개]

: 오전12:30-오후1:00/5,6층 세미나실

_식사	2부 순서가 진행될 세미나실에서 식사진행
_영상	건강한 작은 교회 및 단체 소개 영상

### ■ 2부 [주제별 심층강의 및 대화의 시간]

: 오후1:00-2:30/5,6층 세미나실

_주제별 대화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김근주 513호 세미나실   진행 : 장호철	P.23
_주제별 대화②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의 교회’   양희송 514호 세미나실   진행 : 홍석문	P.27
_주제별 대화③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건강한교회 꿈’ 612호 세미나실   진행 : 김애희 -너머서교회   최우돈 -새맘교회   이원희 -함께여는교회   박혜윤	P.31 P.31 P.33 P.37

### ■ 기타자료

_건강한작은교회연합소개	건강한작은교회연합을 소개합니다.	P.39
_단체소개	한국교회 회복을 소망하는 ‘교회개혁실천연대’	P.43
_세미나 소개	제9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준비팀	P.45

## ‘성도가 꿈꾸는 교회’

-예인교회

찬양	(자료집 pp.7-10참조)	찬양팀
“교회여 일어나라, 은혜로다, 아침 안개 눈 앞 가리듯, 여기에 모인 우리”		
더불어 함께 드리는 기도		다함께
<p>[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월호참사로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정부와 관계 당국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사법정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실천되게 하소서. 애痛的 기도와 함께 행동하는 양심으로 사회에 용인되는 관행을 고쳐가게 하소서. 6.4 동시지방선거가 슬픔을 덮기 위한 도구로 오용되지 않게 하시고, 정치적 책임을 묻고, 행동하는 기도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p> <p>[건작연을 위하여] 한국교회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건작연 연대운동을 격려하여 주소서. 소속된 11개 교회와 1개 단체가 대안적 공동체로서 한국사회와 교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각 운영위와 사무국, 사역자와 교역자를 위로하시고, 더욱 결속하는 건작연 되게 하소서.</p> <p>[세미나를 위하여] 강의와 진행(김근주교수, 양희송대표, 이명희집사), 사례발표와 각 순서를 통해 참여한 모든 이들이 각자의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세미나 되게 인도하소서. 익명화 중이거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안을 모색하며,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위한 노력들로 결실되게 하소서.</p>		
영상		다함께
“익명의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꿈		강지영 외 4명
꿈을 허락받은 성도들로		예인교회
인터뷰 설교		이명희 <sup>새남</sup>
<p>“성도가 꿈꾸는 교회”</p> <p>김근주<sup>기독교연구원</sup> 느헤미야 양희송<sup>청어람</sup> 이카데미</p>		
특송		더작은교회 가족
“더불어 함께-예수님이 좋은 길”		
광고		정재준
기도		주재영 <sup>연덕</sup>
공동축도		다함께

# [ 교회여, 일어나라! ]



A D E sus4 E A D E sus4 E

교 회 여 일 어 나 - 라 - 주 께 서 부 르 시 니 -  
교 회 여 일 어 나 - 라 - 주 께 서 보 내 시 니 - 우

D A/C# Bm F#A# Bm E 1. A

두 려 움 과 실패 내 려 놓 고 교회 여 일 어 나라 -  
릴 부 르 신 삶 의 자 리 에 서 교회 여 일 어 나라 -

2. A DM7

우 린 세 상 의 빛 - (어 둠 을 밝 히 는) 아 나

A Bm7

님 의 편 지 (주 를 나 타 내 는) 주의 교 율 통 해

D/E E E

(우 름 통 해) 세 상 이 주 를 보 리 라 -

A E/G#

일 어 나 라 아 버 지 사 랑 으 로 아 버 지 능 력 으  
노 래 하 라 아 버 지 의 사 랑 을 아 버 지 의 크 심

F#m F#m/E DM7 1. E sus4 E

로 - - 서 로 하 나 되 어 그 빛 을 - 비 추 라 -  
을 - - 이 삶 의 노 래 로 주 님 을 나 타 내

2. E sus4 E7 A

라 - 일 어 나 라 - - -

# [ 은혜로다 ]

시 작 됐 네      우 리 주 님 의 능 력 이

나 의 삶 을 다 스 리 고      새 롭 게 하 네

자 유 하 네      죄 와 사 망 으 로 부 터

나 의 삶 은 변 하 고 난      충 만 하 네

은 혜 로 다      주 의 은 혜

한 량 없 는      주 의 은 혜

은 혜 로 다      주 의 은 혜

변 함 없 는 신 실 하 신      주 의 은 혜 -



# [ 아침 안개 눈 앞 가리듯 ]



D A<sup>7</sup> B<sub>m</sub> B<sub>m</sub><sup>7</sup> E<sub>m</sub> E<sub>m</sub><sup>7</sup> A<sub>sus</sub><sup>4</sup> A<sup>7</sup>  
 아침안개눈앞가리듯 나의 약한믿음의심쌍일 때 부드  
 빗줄기에바위패이듯 나의 작은소망사라져갈 때 고요

F<sub>m</sub> B<sub>m</sub> | 1. E<sub>m</sub> E<sup>7</sup> 3 A<sub>sus</sub><sup>4</sup> A<sup>7</sup>  
 령게다가온주의응성 아무 것도염려하지마 라  
 하게들리는주의응성 내가

| 2. E<sub>m</sub> A<sup>7</sup> D D<sup>7</sup> G A<sup>7</sup> D D<sup>7</sup>  
 너 를 사랑하노 라 외로움과방황속에 서

E<sub>m</sub> A<sup>7</sup> D D<sup>dim</sup> E<sub>m</sub> A<sup>7</sup>  
 주님앞에나아갈때 에 위로 하시는주님

F<sub>m</sub> B<sub>m</sub> E<sup>7</sup> A<sub>sus</sub><sup>4</sup> A<sup>7</sup>  
 나를도우사 상한 나의마음감싸주시 네

D F<sub>m</sub> G A<sub>sus</sub><sup>4</sup> A<sup>7</sup>  
 십자가의보혈로써 주의 크신사랑알게하셨네

D F<sub>m</sub> E<sub>m</sub> A<sup>7</sup> D  
 주님께감사하리 라 언제 나 주님께감사 해

# [ 여기에 모인 우리 ]

1. 여기에 -모인우리 주의 온 총받은자여 라  
이 -뜻하신 일 헤아 리 기어렵더라 도

주께 서 -이 자리 에 함께 계 심을 아노 라  
언제 나 -주 뜻안 에 내가 있 음을 아노 라

언제 나 -주님만 을 찬양 하 며 따라가리 니  
사랑 의 -말씀들 이 나를 더 옥새롭게하 니

시형 을 -당할 때 도 함께 계 심을 믿노 라  
때로 는 -넘어져 도 최후 승 리를 믿노 라

이 믿음 더 옥군 세 라 주가 지켜 주 신 다

어둠 방 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하 여 주 신 다 2. 주님

다 3. 여기에 -모인우리 사랑 받 는 주의자여 라

주께 서 -뜻하신 일 우릴 통 해 펼 치신 다 이 믿음

## ‘익명의 그리스도인’

---

행복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건축으로 과분한 희생이 있었지만 감사했습니다.  
꿈꿨습니다.  
모든 교우가 한 가족되는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변했습니다.  
말씀에서 처세술로,  
사람에서 교회성장으로,  
대화에서 독단으로 변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것인지,  
무리한 건축을 위한 헌금이 믿음인지,  
교회의 결정을 무조건 따름이 순종인지,  
성경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 안 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혔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교회 안에 숨었고,  
배신감에 교회 밖으로 숨었습니다.

그렇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질문합니다.

한 사람의 꿈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까?

대형교회가 교회의 성공입니까?

시대의 아픔에 침묵하는 것이 제자입니까?

가정과 직장은 외면하고 교회 일만 잘하면 성도입니까?

교회에서조차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해석이 있다고 믿진 않습니다.

우리는 설교의 중요함을 압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모든 말이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선취(先取)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모든 성도와 꿈꾸는 건강한 교회를 ...

## ‘익명의 그리스도인?’

### Prologue. 가나안 성도?

최근 몇 년 간 “가나안 성도”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있어왔다. 정재영 교수(실천신학대학원 종교사회과)는 가나안 성도를,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새로운’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며,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spiritual but not religious)’ 신앙인”으로 정의했고, 양희송 대표(청어람)는 좀 더 명료하게 “제도권 교회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현상(faith outside institutions)”으로 정의했다.<sup>1)</sup>

그렇다면, “가나안 성도”를 예인교회의 “익명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양태(樣態)로 볼 수 있을까? 본장에서는 2013년 4월 25일 청어람에서 “갈 길 잃은 현대인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 세미나에 실린 정재영 교수, 양희송 대표의 논문과 가나안 성도에 대한 관련 글들을 바탕으로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 1. 같은 이유?

가나안 성도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정재영 교수는 1) ‘강요받은 신앙(구원의 확신)’에 대한 거부, 2) ‘소통의 부재(다른 신앙에 대한 차별)’에 대한 거부, 3) 신앙과 삶의 불일치(자기들만의 언어와 값싼 은총)로, 양희송 대표는 1) 제도 종교에 대한 반발, 2) 무의미한 예배, 3) 권위주의(성직주의), 4) 위선적 신앙생활, 5) 사회윤리적 도전에 대한 무능력, 6) 설교의 실패, 7) 교회 갈등, 8) 성장/성공 주의로 제시했다.

둘 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세 가지 범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회의 독재적 권력구조이다. 정재영 교수가 지적한 신앙의 강요

1) 본 소고는 2013년 4월 25일, “갈 길 잃은 현대인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청어람에서 열린 공개세미나 자료집에 실린 정재영 교수와 양희송 대표의 논문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정재영, 『소속 없는 신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양희송, 『가나안 성도와 새로운 신앙의 방향』.

(1)와 소통의 부재(2), 그리고 양희송 대표가 지적한 제도 종교에 대한 반발(1), 권위주의(3), 설교의 실패(6), 성장/성공 주의(8)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의 운영체제는 소수의 리더십이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독재를 닮아 있다. 다만 그 권력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할 뿐이다.

둘째, 목회자의 전횡이다. 값싼 은총으로 포장한 설교와 예배의 전횡(정재영 2, 3), 사회윤리적 도전에는 침묵하고, 오직 교회로의 충성만을 강요하는 제자도의 전횡(양희송 4, 5), 성장과 성공주의에만 몰두한 목회의 전횡(양희송 8)이 그것이다. 재밌는 것은 목회자의 재정 횡령과 성적(性的) 타락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 갈등(양희송 7)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예시로 지적되지 않는 것은 의아하다.

셋째, 성도의 이중생활이다. 목회자로부터 받은 교육으로 인해 성도들도 목회자의 언어와 신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개인의 삶에 적용해 왔다. 교회에서는 눈물로 회개하고, 가정과 직장에서는 악을 행하는 이중생활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세상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기독교의 사회윤리적 측면은 배제된 채, 개인윤리적 차원만 강조되어 온 것도 이중생활의 원인 중 하나다.

정리하면, 가나안 성도는 교회의 독재적 권력 구조와 목회자의 전횡 그리고 성도의 이중생활에 대한 거부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교회 구조에 대한 문제고, 나머지는 개인적 차원(목회자/성도)의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주목해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가면 쓴 공동체의 문제이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의 파괴와 같은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은 모두 숨기고,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처럼” 가면을 쓰고 교회로 모인다. 왜냐하면 자신이 겪는 고난을 복 받지 못한 증거로 보는 공동체의 편견과 소외, 그리고 그러한 시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정직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으니 교회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도 극도의 외로움과 익명화를 느끼게 된다. 가면 쓴 공동체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서 가나안 성도의 발생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안마저도 교회구조개혁과 개인윤리적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익명의 그리스도인도 같은 이유를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것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라는 범주의 문제와 연결된다.

## 2. 더 큰 범주!

양희송 대표는 가나안 성도를 평균 7년 이상 교회생활을 했으면서 평균 6개월 이상 교회를 떠날 지 고민했던 사람으로 본다. 그렇게 본다면, 가나안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기 신앙고백이 뚜렷한

사람이고, 더 성경적인 교화를 찾거나 자신이 교회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면, 가나안 성도들은 정재영 교수가 지적하듯이 중세 교회의 제도화에 대한 사막교부들과 같은 “비제도권의 교회 갱신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가나안 성도의 다른 말일까 아니면, 가나안 성도보다 넓은 범주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범주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의 표를 참고해보자.



그리스도인의 범주를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Green - 이하 G)과 교회 안에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Blue - 이하 B)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Red - 이하 R)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가나안 성도는 R만을 지칭하지만,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B)과 밖(R) 모두를 아우르는 더 큰 범주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익명화는 교회 밖에서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나안 성도들의 발생 원인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발생한 원인(“가면 쓴 공동체”의 문제를 포함)과 같다. 그러나 교회 밖으로 뛰쳐나오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B그룹) 교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회가 주는 혜택을 누리되 점차 익명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그러므로 R이 ‘교회로부터’ 익명화되는 것이라면, B는 ‘교회 속에서’ 익명화 된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R보다 B의 숫자가 훨씬 많을 것이다. 우리의 논의가 R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현재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익명화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방치하게 되는 것이다. B영역에 속한 사람들의 발생원인과 특징들을 논의함으로써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Epilogue. 가나안 성도를 넘어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가나안 성도들은 모순을 안고 있다.<sup>2)</sup> 예를 들어 타인을 배제한 채 자신들만의 언어로만 대화하는 것은 비판될 수 있지만(정재영 3), 어떤 공동체이든 자신들만의 언어와 규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예를 들어 “자기들만의 언어”에 대한 비판은 “자기만의 주기도문과 신앙고백”에도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특정한 언어는 공동체의 특징이다.

또한 조직화와 제도화를 거부하는 것은 두 가지 함정이 있다(양희승 1). 첫째는 자기의 생각이 바른 신앙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이 성경적이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도 개인적인 성경해석의 산물일 뿐이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도 결국 자신이 배우고, 읽고, 정리한 신학서적이나 교육의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 없다. 읽으면 얼마나 읽고, 연구하면 얼마나 연구할 수 있을까? 둘째는 조직화와 제도화를 거부하면서도 자신들만의 조직과 제도를 세우려고 하는 모순이다.<sup>3)</sup>

양희승 대표는 기존 교회/목회자가 가나안 성도를 대하는 태도를 “빨리 돌아와야 할 사람”으로 여긴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가나안 성도를 교회 갱신을 위한 자원으로 여겨야 한다고 제안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교회 내에 존재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어쩌면 이것이 더 시급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R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가나안 성도)과는 달리 B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의 원인과 특징을 갖고 있다. R을 교회 갱신을 위한 자원으로 여겨야 한다면, B는 교회 회복을 위한 도전으로 여기고 이에 대한 대안을 세워가야 한다.

교회 밖에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R)과 교회 내에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B)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대안이 이번 이교다 세미나를 통해 세워지길 기대한다.

---

2) 여기서 말하는 모순은 가나안 성도에 대한 논의(정재영 교수, 양희승 대표)가 갖는 모순이 아니라, 실제 가나안 교회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갖는 모순을 말한다.

3) 양희승 대표는 “3. 가나안 교회의 특징”에서 공통적인 특징들을 나열한다: 1)20명 이내의 적은 인원수, 2)주일 오후 시간에 예배, 3)설교는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나 평신도가, 4)자신만의 주기도문과 신앙고백, 5)일상생활을 중시하며 예수적인 삶을 지향, 6)성경에 입각한 설교, 7)수평적 리더십, 8)권위가 아닌 효율성을 따르는 의사결정 구조(만장일치제)



## ‘꿈을 허락받은 성도들로’

예인교회

주님, 저에게도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마음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내가 밟고 선 땅’까지 다스려가심을  
기쁘고 또 기쁘게 알아가는,  
그 기쁨이 힘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한 발짝씩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어느 한 사람도 그 걸음이 ‘나의 걸음’이 되지 않는 이가 없고,  
그 길이 ‘나의 길’이 되지 않는 이가 없는,

때로는 지치고 절망할지라도  
부족하며, 일으키며, 기다리며, 격려하며  
눈물과 웃음으로 또 함께 걷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 됨을 맛보는 교회.

그런 꿈을 꾸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

저도 꿈이 있습니다. 눈물 나게 소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주님.

-2013년 3월 31일의 일기

### 1.

공동체는 나의 이 질문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오랜 시간 하나였던 그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함께 자라온 17년의 시간... 가족 같은 친밀한 이들과의 이별... 비록 어리고 부족한 수준이라 해도 함께 알아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그리고픈 우리들의 인생이 있었던,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귀한 우리의 교회였고, 나의 교회였던 그 공동체를 나는 그렇게 떠났다.

## 2.

### “당신이 신자라면, 지금 교회가 꿈꾸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십시오!”

설교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지금 ‘교회’가 추진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혹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참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까? 혹 이 억울함은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 데서 생겨난 것은 아닐까?’ 질문은 계속되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50명을 채 넘지 않는 작은 교회에서 해 왔던 많은 일들…: 우리는 3년 가까이 외국인 신학생 가족의 학비와 생활을 책임졌고, 지역 사회를 위한 비영리 목적의 교육 시설을 운영했다. 대안학교와 공동목회를 지나 이제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목사님이 주축이 되어 만든 한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 있었다.

틀린 일들은 없었다. 모두 ‘옳은’ 일들이었다. 그러나 그 ‘옳은’ 일들은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나 감사를 더해주지 못했다. 작은 교회라 해도, 교회 안에는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섬기려는 열정들이 분명 존재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임무’만으로도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하나 둘 늘어갔다. 성도들의 힘겨움은 목사님에게는 답답함과 조급함이 되었고, 그것은 다시 질책이 되어 성도들에게 돌아왔다.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좋은 일들을 꿈꾸면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쁘게 해 나갈 수 없는 것일까?

대부분 목사님의 주창에서 시작되어, 설득과 동의의 절차 없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교회의 사역들은, 어떤 동기도 부여해 주지 못했다. 반대는 ‘믿음 없음’과 ‘사랑 없음’의 징표로 해석되기 일쑤였고, 결국 성도들은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때마다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은 가슴 속에 묻어둔 채, 일만 하나 더 받아들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겨웠던 것은 ‘순종치 않는’ 성도로서 느껴야 하는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른다.

## 3.

###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요, 모든 설교자들이 전제로 삼는 말씀…: 나의 공동체 역시 설교자로부터 회중으로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가 꿈을 정하고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어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꿈을 주셨다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할 뿐이었다.

납득하기 어려웠다.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꿈’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곧 ‘교회의 꿈’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목회자-성도’로 이어지는 이 너무

도 당연한 의사소통의 과정에 문제는 없을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도들’이다. 성경은 말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 안에서 ‘소원’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 과정을 통해 합해지고 형상화된 그것이 곧 ‘교회의 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라면 과연 공동체의 ‘대다수’가 이해하지도 설득당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면,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때문에 설령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다 하더라도, ‘설득’과 ‘동의’의 과정을 생략한 채 밀어붙이는 꿈은 가짜다. 강제되고 주입된 꿈은, 자발적으로 싹트는 소원과 헌신을 가로막는다.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 교회의 진짜 꿈은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져 함께 만드는 소원’이어야 한다.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의 ‘과정’일지도 모른다.

#### 4.

교회 안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하나도 풀 수 없었다. 괜한 분란을 만들어 힘을 빼고 있다는 비난 앞에서, 내 손을 번쩍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듭 여쭙었었다. 이것이 틀린 생각은 아니냐고, 결국 나는 그 모든 힘겨움에 지쳐 공동체를 떠났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소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찾고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다!

#### **“말씀의 회복을 꿈꾸는 교회! 말씀이 말씀하시는 온 세상의 회복을 꿈꾸는 교회!”**

비록 오랜 시간 몸담고 있던 공동체를 떠났지만 나는 아직도 ‘교회를 향한 꿈’을 버릴 수가 없다. 나는 그 이유가, 내가 ‘성도’이며 곧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믿는다. 이 땅의 많은 성도들 역시 그들 자신이 ‘교회’이므로, ‘교회를 향한 꿈’을 허락받을 때 비로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 안에 거하시며 소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가리켜야 한다. 자기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회중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을 가진 지체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지체들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_빌2:13

## ‘성도가 꿈꾸는 교회’

[진행] 이명희아나운서, [강사] 김근주교수, 양희송대표

---

### [질문사항 문자접수]

※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나 건강한교회에 대한 궁금 사항을 문자로 접수받습니다. 취합된 내용 중, 가장 많은 질문 2-3가지를 강사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수신처 : 010-2758-4795).



## ‘알립니다’

정재준집사, 예인교회 운영위원장

---

### ① 환영합니다

◇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② 식사 안내

◇ 점심식사는 1부 ‘성도가 꿈꾸는 교회’ 행사를 마친 후, 2부 순서가 진행되는 513호, 514호, 612호에서 각각 도시락으로 진행됩니다. 참석하실 세미나를 정하신 후,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③ 2부 ‘주제별 심층강의 및 대화의 시간’ 진행 안내

① 513호/김근주 교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_진행자 : 장호철(예인교회)

② 514호/양화송 대표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의 교회”

\_진행자 : 홍석문(예인교회)

③ 612호/전작연 교회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건강한교회 꿈”

\_내용 : 건강한 교회 소개 및 사례 발표

\_진행자 : 김애희(더함공동체교회 운영위원장)

\_너머서교회(최우돈), 새맘교회(이원희), 함께여는교회(박혜운)

### ④ 진행본부/교회 및 단체 소개 부스

◇ 세미나 진행 혹은 언론보도 관계 안내는 512호에서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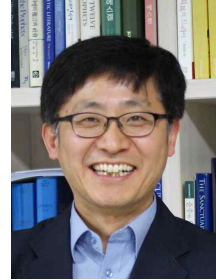
◇ 건작연소속 교회 및 단체 소개 부스는 612호 입구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소속교회 혹은 교회개혁실천연대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 ⑤ 유치부, 초등부 안내

◇ 유치부(4세-7세)와 초등부(초1-6학년)는 각각 513호, 514호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4층 식당에서 오후1시까지 식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사건에 대한 유대  
공동체의 응답



김근주교수 |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이스라엘에 가져다 준 충격은 상상외로 컸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의 대상이었던 다윗의 나라(삼하 7:16)와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왕상 8:29)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물어보게 하였다. 어떻게 영원한 언약이 이리도 영원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다윗의 나라와 성전이 파괴되었음에도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은 붕괴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도리어 오늘날의 구약 성경을 이루게 되는 문서들이 모여지고 서술되고 집약되는 변화를 만들어 내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구약 성경은 멸망과 포로에 대한 반성과 해석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문제를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시각이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때, 포로기 이후 유대 공동체가 그들의 근본적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 신앙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궁리해보자.

### 1. 역사의 발견

#### 1.1. 역사 반성과 신앙 고백

멸망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묻게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반성이 구약 본문들에 반영되어 있고, 구약 책들의 형성으로도 반영되었다.

① 역사서의 집필 : 그들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열왕기 역사라면, 그들이 어떻게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역대기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서들은 지난 역사에 대한 복기를 통해 다가올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고자 했다.

② 스 7:8-14 : 지난 역사 회고의 방향. 죄로 가득 찬 역사, 율법에 기반한 삶,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 이러한 역사 반성은 포로 후기 본문의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가령 스 9:6-15; 느 9:1-38; 단 9:3-19

## 1.2. 시편집의 구성

시편집은 토라의 구성을 따라 다섯 권 체제로 편집되었다. 그리고 이 시편집은 1편을 토라에 대한 노래, 2편을 왕과 메시아에 대한 노래로 담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편집 4권의 존재와 같은 틀을 통해 시편 전체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증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탄식과 찬양.

## 2. 멸망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엿보기

### 2.1. 멸망 이후 그 땅에 남은 백성들(렘 39:10-41:3)

유대땅에 남은 이들 역시 역명의 그리스도인이자 않은가. 그러나 그들에게도 삶이 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역사도 있었다. 그들은 도리어 권위와 이름에서부터 놓여날 수 있었다. 에벳멜렉, 성밖의 아무 소유 없던 빈민들,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 그리고 쫓겨났던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 시절 역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상, 약속이 성취되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 결코 끝은 끝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각자의 삶에 임하는 영광의 날들을 기대하라. 그들을 위해 땅이 재분배되었다. 삶의 터전이 다시 주어졌다. 그들에게 임한 끔찍한 상황에 대한 반성은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이다.

### 2.2. 초막절 공동체(느 8:13-18)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느 8:16-17)



- 모두 함께 익명화되기로서의 초막절 준수. 기분을 회복한 공동체의 기쁨. 여기에는 공동체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바로잡음(느 5장)이 포함되어 있다.



##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의 교회



양희송대표, 청어람 아카데미

### 1. 교회론 세미나의 추억

- 교회는 국가와 닮았다가, 가정과 닮았다가, 요즘은 기업과 닮아간다. (주식회사의 개념, 비영리 단체)

- 비영리단체 경영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분규 관련) 쟁점이 연구되어 있고, 해결되어 있다. 재정투명성 기준, 민주적 운영, 비전선언문, 위기관리, 성과관리, 인사원칙 등등. 교회의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대안이 잘 나와 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의지가 있으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 다만, 우리에게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부여가 약하다. 교회를 통해 무얼 해야 하겠다는 점에 강한 동력이 없다. 우리에게 여전히 비어있는 것은 교회, 이 에클레시아 (ekklesia)란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공감대이다.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교회의 본질로,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디다케’ 등을 꼽는다.

### 2. 교회론을 다시 묻다

- 교회와 관련된 스캔들의 종류

- ① 목회자 개인과 관련된 것(성문제, 설교/논문 표절, 거짓경력, 저질설교 등)
- ② 소수 교회 내 핵심층과 관련된 것(재정 비리, 부당한 인사정책, 정책 왜곡, 비민주성 등)
- ③ 교회 회중들과 관련된 것(신앙의 오락적/소비적 행태, 집단의 익명성에 편승한 무책임함, 위선과 위약, 파당과 아집, 편의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등)
- ④ 신앙의 성향(집단 이기주의, 공격성과 전투성(승리주의), 기복주의, 온정주의, )

- **본질적 질문** :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통치’이다. 그것은 그분이 창조한 세상에 대해 그분이 행할 당연한 권리이다. 인간의 타락으로 오염되고, 왜곡되고,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구원과 회복과 용서와 화해를 포함한다는 것, 그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되시겠다”는 선언과 그 실현을 말한다. 예수께서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막1:15)였다. 그의 비유는 ‘천국/하나님 나라는 이리이러하다’는 것으로 가득차 있다. 그의 전 생애는 ‘하나님 나라’를 놓고, 당대의 종교 선생들과 날카롭게 비교되고, 대조되는 것이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가 예수의 대표적인 어법이었고, 가르침의 내용이였다.

- ‘에클레시아’란 무엇인가?

- ① ‘불러내어 모인 모임’이다. 군사적 정치적 회합을 일컫는 용어이다.
- ② 성경에서는 꼭 ‘\*\* 지역의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라고 한정해서 표현한다. (에베소서는 예외적)
- ③ 부르심은 목적이 있다.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등등.

-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그 존립근거가 없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정작 나타난 것은 ‘교회’였다” 지상교회의 고민과 딜레마는 무엇인가? 내건 목표에 언제나 미달한다는 것이다. 때로는 역행한다는 것.

### 3. 교회는 어떻게 왜곡되는가?

- 초대교회 시절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데에는 3-5년이 걸렸다.(참고: 알란 크라이더 <회심의 변질>(대장간)) 그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기 전에,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고, 자기 삶이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었다.

- 교회론의 변천을 살펴보자. 교회론의 모델은 국가에서 기업으로 이동한다. 그 긍정적, 부정적 양상은 오늘날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교회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너무 기대하거나 빠가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엄청 위대한 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 성도 개인이 각각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면, 교회는 그보다 훨씬 후진 곳이 되고 만다. 오합지졸을 모아서 위대한 군대가 나오지는 않는다. 지도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지 말라.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 못하는, 안 하는 문제를 지도자가 마술을 부려서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믿음이지 아니고, 망상이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멋진 일도 많이 했지만, 매우 불행한 일에도 원인제공을 했다. 그런 문제를 안다면, 결사적으로 피해야 한다. 기초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는 책에서 "공룡이 아니라,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식생태계, 교회생태계, 시민생태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가? 지난 30년간 한국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성장기를 지냈다. 세계 최대 교회들이 즐비한 나라이다.

- 어떤 대안적 방향이 있을까? 이제는 '공공성'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다. <다시 프로테스탄트>를 쓰고, 수십 회의 강연회를 다녔다. 책 한 권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제 시작이다. 신학을 대중들의 손에 돌려주어야 한다. (알리스터 맥그라스 <신학이란 무엇인가> 20회 팟캐스트 강의) '가나안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기존의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개혁 모델이 나올 것인가? 혁신적인 새로운 교회운동은 어떻게 펼쳐질까?

## ■참고자료

- 스탠리 하우어워스, 윌리엄 윌리몬,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복있는사람)
- 에이버리 텔레스, <교회의 모델> (한국기독교연구소)
- 레슬리 뉴비긴, <교회란 무엇인가?>(IVP)
- 알란 크라이더, <회심의 변질>(대장간)
- 양희송, <다시 프로테스탄트>(복있는사람)



##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건강한교회 꿈

-건강한 작은교회 운영사례 발표-

[진행] 김애희집사, 더함공동체교회 운영위원장

[사례1]

### ‘너머서교회’

[발표] 최우돈장로, 너머서교회

너머서교회는 2008년 3월 30일 안해용목사를 담임목사로 하여 일산에 있는 중산 고등학교 음악실에서 설립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어, 올해로 개척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현재는 풍산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사무실 겸 교육관으로 너머서 꿈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관에 의하여 안해용목사가 작년 말로 퇴임을 하고 6개월간의 청빙 작업을 거쳐 2대 담임 목사인 이현주목사가 담임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1. 너머서 교회는

- ① 우리 교회는 “너머서” 라는 이름과 같이 복음의 정신과 그 본질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존의 종교적 관습과 신앙적인 유전들을 과감하게 넘어 서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 ② 우리 교회는 “평신도 신학”을 바탕으로 설립 되었습니다(하워드 슈나이더, 로버트 뱅크스, 송인규 등의 저서 기반).
- ③ 우리 교회는 “건강한 작은 교회”를 추구하며 분립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 ④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 가는 교회 입니다. 차별을 넘어 차이를 인정하는 교회 입니다(갈3:28).
- ⑤ 우리 교회는 교회의 공동체성과 유기체성을(한몸됨) 소중히 여깁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독립된 인격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중 하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 ⑥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 전용의 건물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 ⑦ 우리 교회는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 합니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을 소중히 여깁니다.
- ⑧ 우리 교회는 교회 운영에 있어서 사람이 아닌 “교회 정관”에 의하여 모든 구성원이 참여 하는 민주적 방법으로 운영 합니다.
- ⑨ 우리 교회는 재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결과를 항상 교회 홈페이지에 공개 합니다.
- ⑩ 우리 교회는 목회와 운영이 분리 되어 있습니다.
- ⑪ 우리 교회는 목사와 장로에 대한 “재신임 제도”가 있습니다.

## 2. 너머서 교회가 생각하는

### 1) 성도란

- ① 뻔전 2:9-10 새 이스라엘의 사명을 받은 자들(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그의 소유된 백성)
- ② 목회자 의존 신앙에서 탈피하여 자립하는 신앙을 추구(코람 데오)
- ③ 삶의 예배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

### 2) 교회의 기능과 역할

- ① 교회는 건물이 아님. 택함 받은 무리들의 모임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 ② 정기적 예배(주일)와 일상의 예배(삶의 예배)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
- ③ 주차장의 기능(모임)과 주유소의 기능(홀어짐)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곳.

### 3) 목회자

- ① 목회자와 일반 성도는 신분은 동일하되 역할은 다름.
- ② 목회자와 일반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
- ③ 목회자는 목회 전문가로서 일반 성도들의 신앙 코치 역할을 수행 하는 분.



## ‘새맘교회’

[발표] 이원희집사, 새맘교회

### 1. 개요

- ① 설립 : 2010년 9월 12일
- ② 소속 : 건강한작은교회연합
- ③ 장소 : 세계청소년엔지오문화원(영등포소재)
- ④ 출석인원 : 100여명(어른70명, 아이30명)
- ⑤ 목사 : 박득훈

### 2. 교회비전

: 우리 교회는 예배, 성도의 교제,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공유합니다.

- ①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
- ②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함과 나눔을 실천하는 친밀한 예배 공동체
- ③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해가는 선교 공동체

### 3. 운영조직

- ① 총회/18세 이상 등록교우
  - 인사총회 : 11월, 사무총회 : 익년 1월
  - 총회의장 : 교회를 대표함, 매년 인사총회에서 임명(현재 : 전중환 집사)
- ② 운영위원회/
  - 구성 : 목사, 장로1인, 운영위원장, 부장6명, 청년회장, 여성회장, 구역장대표
  -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 유경험자 중 총회에서 임명(현재 : 박종연장로)

- ③ 감사/회계감사, 업무감사
- ④ 자율조직/청년회, 여성회, 구역장 모임 등

#### 4. 직원

직원명	자 격	선출/재선임	기타
목사	목회자 초빙 위원회에서 추천	총회2/3 재선임1/2	임기 : 초빙시5년 재선임시 3년
장로	50세 이상 세례교인 운영위원, 구역장 역임하신 분	총회2/3	임기 : 3년 매3년후1년 안식년
집사	세례 2년 경과 30세 이상 또는 기혼자	총회 2/3	임기 : 3년 안수 집사제 별도 없음
권사	55세 이상 여성집사 집사 5년 이상	자동호칭제	임기 없음

#### 5. 특징

##### 1) 성도중심의 민주적 교회

- ① 운영위원에 의한 교회 운영
- ② 모든 직분 임기제(목사, 장로, 집사 각 3년)
- ③ 사역자 외 모든 교회업무 무 사례 운영
- ④ 회의 개방 및 회의내용 리얼타임 공유
- ⑤ 투명한 예산운영
- ⑥ 교우설교 : 년 4회

##### 2) 함께하는 도시공동체

- ① 초대 교회를 닮은 도시공동체 지향
- ② 함께 만들어 함께 먹기(도시락공동체)
- ③ 새맘특별기금 운영
- ④ 집사 임명과 동시에 교회업무 부여(1인 1업무)

- ⑤ 경제적, 장소 공동체의 지속적 연구

### 3) 소유 최소화 실천

- ① 예배당 전용의 재산 소유 금지
- ② 교회소유의 재산은 가능한 공유
- ③ 예산의 30% 선교 및 나눔 목적 사용
- ④ 정기적인 봉사활동 : 지역교회가 아님에 따른 한계성 존재
- ⑤ 환경보호 실천 :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실천

### 4) 건강한 작은교회 지향

- ① 작은 교회 지향/건강한 작은교회연합 소속, 200인 이상 또는 10% 이상 요청시 분리
- ② 무소유/교회소유의 재산을 갖지 않음
- ③ 교회개혁을 위한 지원사업/
  - 교회개혁실천연대 , 희년함께, 성서한국, 느헤미야기독연구원, 뉴스앤조이, 기독청년아카데미, 복음과상황, 평화누리,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 5) 정기모임

- ① 일요 예배
- ② 일요일 오후프로그램(13:30-1500)
  - 1주 박득훈 목사 Q&A
  - 2주 인문학&MORE(교우 또는 외부강사)
  - 3주 선교포럼(복지, 여성, 사교육, 제주강정마을...)
  - 4주 영화상영&봉사활동
- ③ 녹색예배 : 년 2회
- ④ 흠여지는 예배 : 년 3회
- ⑤ 구역모임 : 월 2회, 격월로 2개구역 연합모임
- ⑥ 새맘공동과정 : 9주 과정(박득훈목사 주관)

### 6) 자생적인 새맘 모임들

- ① 밝힘녀 모임들(개혁연대 밝힘녀 후속모임)

- ② 예세(예수님세상) 독서토론회
- ③ 경제민주화동아리
- ④ 사회참여동아리
- ⑤ 성경일독모임 (여성:화, 남성:수)

## ‘함께여는교회’

[발표] 박해운집사, 함께여는교회

함께여는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명체가 함께하여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또 함께여는교회는 서로간의 다름을 존중하고 차별과 경쟁이 아닌 서로가 서로의 선물이 되기를 힘쓰는 교우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 1. 함께여는교회 개요

함께여는교회는 2008년 1월 6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방인성 현 담임목사의 전셋집 사택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리면서 태동했다. 설립 때부터 참여한 교인들은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평등하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 동역하면서, 건강하고 민주적인 교회를 꾸려가겠다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목회자는 말씀과 교육에 주력하고, 성도가 교회 운영과 재정을 담당하는 형태의 교회 조직을 마련하였다. 일반 성도 중심의 운영위원회가 교회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담임목사와 장로, 집사 등 모든 직분의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민주적 정관을 제정하여 위와 같은 운영원칙을 명문화했다. 교회 소유의 건물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예배당 전용 건물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정관에 명시하였다.

함께여는교회는 방인성 목사 사택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계에 이르자, 2008년 봄 서울 장충동에 우리함께 빌딩 2층 강의실을 매 주일마다 임대하여 예배처소로 삼았다. 그 후 주식회사 파고다 측의 협력을 얻어 약 2년 동안 강남 파고다 학원 7층에서 매 주일 예배를 드렸고, 현재는 서울 종로3가 파고다학원 건물 지하 2층을 주일 예배 처소로 삼고 있다.

### 2. 함께여는교회와 사회선교

함께여는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역은 사회선교이다. 매년 교회재정의 30% 이상을 사회선교에 투입하고 있다. 사회선교비 30%는 교회 자체 유지비를 최소화하고, 대신 사회와 이웃을 위해 가능한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이다. 현재 사회선교비는 교회 개혁과 사회정의, 통일, 환경, 이웃 섬기기 등 꼭 필요한 분야를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단체를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함께여는교회의 사회선교 활동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방인성 목사의 역할이다. 방인성 목사는 우리 사회에 희년의 정신을 선포하고 정의와 공평을 부르짖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적이고 구조적인 영역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측면에서 방인성 목사는 함께여는교회가 대한민국에 파송한 사회선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3. 함께여는교회 조직

가장 상위의 의결기관으로 교인총회가 있고, 상설 조직인 운영위원회가 교회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운영위원회는 교역자회 대표, 장로회 대표, 운영위원장, 각 팀의 팀장과 부팀장, 소그룹 대표 및 청년회장 등으로 구성하여, 교회 구성원의 의사를 골고루 반영하도록 하였다. 운영위원장은 교인 중에서 선출하되, 목사는 운영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교회의 원활한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5개의 팀이 구성되어 있다. 예배생활팀, 사회선교팀, 교육훈련팀, 재정팀, 가정팀 등이다. 각 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예배생활팀 :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업무, 총무 및 홈페이지 운영, 중식을 포함한 봉사에 관한 일체사항의 심의 및 집행
- ② 사회선교팀 : 국내외 선교 및 구제에 관한 일체사항의 심의 및 집행
- ③ 교육훈련팀 : 교인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일체사항의 심의 및 집행
- ④ 재정팀 : 교회 재정에 관한 일체사항의 심의 및 집행
- ⑤ 가족팀 : 새가족 교육과 정착에 관한 업무 및 교인의 친교(심방 포함)에 관련된 업무에 관한 일체사항의 심의 및 집행

## 건강한작은교회연합을 소개합니다

**건강한작은교회연합** 前개혁신교회네트워크, 이하 ‘건작연’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간 연합기구로서 2005년 10월 30일 설립되었습니다. 건작연은 설립 이후 회원교회 간 유대강화 및 협력사역을 전개하고, 교회개혁 시민단체를 지원 협력하며, 건강한 작은 교회의 태동과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 건작연은 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과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함께 합니다. 건작연은 교회 간 공동체적 나눔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앞당기는 일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활동해 나갑니다.

### 1. 목적과 성격

#### ○목적

- \_회원교회간 유대강화 및 협력사역
- \_교회개혁사업 협력 및 지원
- \_개 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활동

#### ○성격

- \_개교회의 자율성의 기초 위에서 긴밀한 협력사역을 추구하는 교회 연합
- \_회원교회의 확장을 통해 개혁교회 진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교회 연합
- \_개혁교회모델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한 교회 연합
- \_개교회주의를 넘은 협력사역의 시범을 위한 교회 연합
- \_목회자와 일반신도의 협력사역을 추구하는 교회 연합

### 2. 주요사업

- 친목사업 : 체육대회, 야유회, 합창대회, 연합수련회
- 교육사업 : 종교개혁기념세미나, 건강한 교회세미나
- 사회복지사업 : 시설봉사, 사회복지지원, 건강한 소비조장
- 시민단체지원사업 : 교회개혁 관련 기독교시민단체 지원

○기타 대표자 회의에서 정하는 사업

### 3. 회원교회/단체(2014.5. 현재)

○회원교회(지역/담임목회자) : 너머서교회(경기 일산/이현주), 더작은교회(인천 부평/전영준),  
더함공동체교회(인천 주안/이진오), 디딤돌교회(서울 송파/윤선주),  
새들녁교회(서울 오금동/박태순-강병욱), 새맘교회(서울 영등포/박득훈),  
아름다운양지교회(충남 아산/조석장), 예인교회(경기 부천/정성규),  
언덕교회(서울 서초/박창훈), 징검다리교회(인천 불로동/유인환),  
함께여는교회(서울 종로/방인성)

○회원단체 :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 박종운, 방인성, 백종국, 윤경아)

### 4. 홈페이지 및 연락처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reformingchurch>

○연락처 : 운영위원장 황영수집사<sup>예인</sup> lsahys@naver.com/010.3815.8637

총무 나중삼집사<sup>더함공동체</sup> 03book@naver.com/010.3354.3254

### 5. 회원교회 및 단체 소개

[예배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288 풍산중학교 시청각실(5층)

#### 너머서교회

[www.beyondchurch.or.kr](http://www.beyondchurch.or.kr)

031.917.1209

운영위원장/한명석집사

담임목회자/이현주목사

“차별을 넘어 차이를 인정하는 교회”(갈3:28~29)

너머서교회는 2008년 3월 30일에 설립되어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풍산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동 일산동구 1338-2

[예배장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33 인천예림학교 예배실

2013년 7월 예인교회에서 두 개의 건강한 형제교회로의 분립을 꿈꾸던 80여명이 참여하여 설립했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커지는 교회, 예수보다 더 유명해지려는 목회자와 성도는 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사랑보다 더 작은 교회, 겨자씨 한 알보다 더 작은 성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더 크게 자라나는 교회! '더작은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작은교회의 기본정신은 “건물 안 교회에서 세상 속 교회로! 만인 제사장직을 통한 민주적 교회 운영으로! 작은 나눔을 통한 더 큰 누림으로!”입니다.

#### 더작은교회

[cafe.daum.net/the-sc](http://cafe.daum.net/the-sc)

032.328.0692(예인교회)

운영위원장/노경학권사

담임목회자/전영준목사



[예배장소/사무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96-17 정명B/D 2층/지층

## 더함공동체교회

www.withplus.org

070.8245.1391

운영위원장/김애희집사

담임목회자/이진오목사

“단순함(simple) 작음(small) 더불어 함께(with)”

우리의 사명은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과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과 시대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며, 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9 서울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5층 강당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며, 부흥을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와 막힌 담을 허무는 소통과 연대로써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널리 확장해간다. Didimer 7가지 정신 : Disciple (예수그리스도의 제자), Identity (자기정체성 인식), Doer (행동하는 사람), Innovation (혁신), Membership (공동체일원 의식), Evangelism (복음 전파), Ready (준비)”

[사무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78-3 202호

## 디딤돌교회

www.didimer.net

02.6408.9101

운영위원장/

담임목회자/윤선주목사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4번지 현대아파트 현대종합상가 A동 3호 빛소 커피숍

## 새들녘교회

www.sdnchurch.net

운영위원장/

담임목회자/박태순목사,

강병욱전도사

“삶은 곧 우리의 신앙-은혜의 들녘, 새들녘을 향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성생활과 복음 전파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기독교 사회참여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건강과 사회의 행복을 위하여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예배장소/사무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562 지하1층

우리 교회는 예배, 성도의 교제,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1.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 2.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귄다 나눔을 실천하는 친밀한 예배 공동체 3.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해가는 선교 공동체

## 새맘교회

cafe.daum.net/semam2010

운영위원장/박종연장로

담임목회자/박득훈목사

[예배장소/사무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복수리 1222

## 아름다운양지교회

cafe.daum.net/asan-church

041.533.1885

운영위원장/

담임목회자/조석장목사

성경본문을 설교하는 교회, 민주적 운영을 시행하는 교회, 교회개혁운동에 동참하는 교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교회의 외면적 성장보다는 내면적 성숙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모든 평신도를 예수님의 동역자로, 소그룹을 통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족공동체로, 선교참여를 통하여, 하나님나라를 넓혀가는 선교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파고다타워 7층 대강당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라는 목표 아래, 다음 4가지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1.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2. 성경에 기초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3.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교회
4.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 언덕교회

www.unduk.or.kr

운영위원장/박종연장로  
공동/박창훈목사

**[예배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4-2 복사골문화센터 5층

## 예인교회

www.yein.org

032.328.0692

운영위원장/정재준집사

담임목회자/정성규목사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

성도중심의 교회, 민주적 운영, 아들람같은 도시공동체, 최소한 소유의 원칙, 분립, 투명한 재정 운영,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위한 연합활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설립 11주년을 맞아 ‘더작은교회’를 형제교회로 분립했습니다.

**[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44-4호 가나베스트타운빌딩 412호

**[예배장소/사무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37-22(불로동)

“상식이 통하는 교회, 끝없이 개혁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마음을 치유하는 교회”

1. 성경적 가치(세속가치 극복)
2. 은사적 직제(목회와 운영의 분리)
3. 민주적 운영(운영위원회에 의한 운영과 재정의 투명)
4. 교회개혁(개교회주의 극복)
5. 사회적 책임(지역에서 소외된 이들 섬기기)
6. 건강한 분립(의도적 작은교회 추구)

## 징검다리교회

cafe.daum.net/jinggeomdari

032.563.0191

운영위원장/

담임목회자/유인환목사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38-1 종로파고다타워 지하2층 이벤트홀

## 함께여는교회

www.opentogether.org

02.743.4113

운영위원장/김대준집사

담임목회자/방인성목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1.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힘쓰는 교회
2. 섬김과 사랑의 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
3.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

**[사무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305-6

**[사무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 영남빌딩 205호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뜻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 의해 2002년 11월 24일 창립된 단체입니다. 1. 한국교회의 개혁과 건강한 교회를 통한 사회개혁을 일구어냄으로 하나님나라를 펼쳐가고자 합니다. 2.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운동 3. 한국교회에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사랑으로 지적하는 비판운동 4. 한국교회의 건강한 구조 확립을 위한 교회대안제시 5.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일꾼을 양성하는 교육

## 교회개혁실천연대

www.protest2002.org

02.741.2793

공동대표/박종운, 방인성,  
백종국, 윤경아

## 한국교회 회복을 소망하는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뜻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 의해 2002년 11월 24일 창립된 단체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개혁과 건강한 교회를 통한 사회개혁을 일구어냄으로써 하나님나라를 펼쳐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운동**,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일꾼을 양성하는 **교육활동**,  
교회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돕는 **교회상담**,  
한국교회에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사랑으로 지적하는 **이슈파이팅**,  
정관 및 재정조례 보급, 목회자 청빙 등 한국교회의 건강한 구조 확립을 위한 **교회대안제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하는 개혁**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 네! 저도 교회개혁운동에 참여하겠습니다!

교회개혁운동은 비둘기 같이 순결한 마음과 뱀 같은 지혜를 지닌 이들이 힘차게 연대해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복식부기를 실시하며, 매월 재정 결산내용을 홈페이지와 개별 메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정관 29조 3항 의거). 귀하의 후원은 교회개혁운동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과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름		교회	
이메일		핸드폰	
하고싶은말			
참여방법	<input type="checkbox"/> 관심회원으로 가입하여 메일링 서비스를 받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후원함으로 소식지와 메일을 받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자원활동으로 총회 참관활동, 피켓팅, 사진, 웹디자인 등을 돕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중보기도자로 지원하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 내용을 체크하신 후, 절취하여 교회개혁실천연대 부스에 주십시오. 추후 전화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전화 02-741-2793
- 팩스 02-741-2794
- 이메일 [protest@protest2002.org](mailto:protest@protest2002.org)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번지 영남빌딩 205호
- 홈페이지 [www.protest2002.org](http://www.protest2002.org)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rchreform>

##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초대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이하 ‘이교다 세미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또는 ‘익명화 과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초대해 한국교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과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모색하고 공론하는 장이다. 이교다 세미나는 한국교회 내의 문제들로 제도적 교회를 떠난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그 문제들은 ‘교회의 교권사제주의’, ‘목회세습’, ‘물질지향의 기복신앙’, ‘소통부재’, ‘불투명한 재정운영’, ‘무리한 건축’, ‘사회참여 외면’ 등이 있다. 이교다 세미나의 목적은 위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익명의 그리스도의 회복을 돕도록 관계 기관 및 건강한 교회를 연결시켜주는데 있다.

이교다 세미나는 2004년 9월, 설립2주년을 맞이한 예인교회가 보다 건강한 교회공동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제1회 교회다운 교회 세미나-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를 연 것이 시초였다. 오세택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영근 교수(아담재 대표)가 교회다운 교회의 성경적 이상, 성도다운 성도의 영성, 소통 가능한 교회구조 개선을 강의했다.

이후 2006년 11월, 제2회 세미나부터 5회까지는 예인교회가, 제6회부터 8회까지는 건강한작은교회연합(이하 ‘건작연’)前개혁교회네트워크 소속교회들이 주관하며 학자와 언론인, 목회자 등 다양한 강사들(김종희대표, 이만열교수, 이의용교수, 한완상전총재, 손봉호장로, 배덕만교수, 박득훈목사 등)의 교회구조개혁과 교인인식개혁을 위한 강의와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주제는 ① 교회개혁의 필요성, ② 교회분쟁 조정을 위한 정관 갖기, ③ 교회 건축 억제 및 건물 없는 교회 소개, ④ 무한교회성장이 아닌 교회분립의 필요와 실례, ⑤ 수직적 교회구조 개선을 통한 수평적 구조 형성 등이다.

하지만 회차가 거듭되면서 이교다 세미나가 익명의 그리스도인보다는 건작연만을 위한 연례행사로 치우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준비팀에서는 교회개혁운동과 관련한 개인과 단체에 자문을 구하고, 교회구조개혁만이 아닌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 한 사람만이 꿈꾸는 교회가 아닌 성도가 함께 꿈꾸는 교회 모습,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적 교회공동체를 논의하고자 한다.

## 1. 각 화차별 현황

화차	일시	주관	주최	장소	주제	프로그램/소주제
1	2004. 9.5,12,19	예인교회	예인교회	복사골문화센터 세미나실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① 설계도 있는 교회 다니고 싶다/오세택목사 ② 영성 깊은 교회 다니고 싶 다/박득훈목사 ③ 말 통하는 교회 다니고 싶다/박영근대표 ④ 한국교회 개 혁을 위한 기도회/구교형목사
2	2006.12.3	예인교회	예인교회	복사골문화센터 세미나실	무엇이 대안입니까?	① 한국교회의 7가지 문제점/김종희대표 ②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영상 ③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다/홍순호권사 [간담회] 교회다운 교회 어떻게 세울 것인가?
3	2008.2.24	예인교회	예인교회	복사골문화센터 세미나실	-	① 왜 교회개혁이 필요한가?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이만열장로 ② 교회 개혁을 꿈꾸는 교회/이익용장로
4	2009.1.18	예인교회	예인교회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세미나실	교회,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연합예배 주제설교] 예수 없는 예수교회/한완상장로 ① 건물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위한 첫 단추이다/안해용목사 ② 익명 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초청 행사/조병학장로 ③ 새벽이슬과 같은 주의 청 년/이진오전도사 ④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회규약과 정관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박득훈목사
5	2010.4.11	예인교회	개혁교회네트워크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세미나실	교회다운 교회 함께 만들기	[연합예배 주제설교] 교회개혁의 지혜/백종국장로 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백종국장로 ② 교회분립 시기와 방법은?/ 유계섭목사 ③ 교회 건축, 한계는 없는가?/박득훈목사 ④ 교회 분쟁 해결 방법은?/정은형목사 ⑤ 개혁교회의 교회교육은 어떻게?/교회별 사례-안해 용목사진행 ⑥ 개혁교회를 위한 청년의 역할/최현락목사
6	2011.5.22	너머서교회	개혁교회네트워크	중산초등학교 5층	왜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는가?	[연합예배 주제설교] /손봉호장로 ① 차별을 넘어 차이를 인정 하는 교회/조석민교수 ② 모이는 교회에서 흘 어지는 교회/박성진목사 ③ 함께 세워 가는 교회/최우돈장로 ④ 세상과 소 통하는 교회/정성규목사
7	2012.5.20	언덕교회	개혁교회네트워크	서울 강남 파고다여학원 7층 강당	교회 민주화는 가능한가?	[연합예배 주제설교] 교회의 민주화는 가능한가?/배덕만목사 ① 건강한 민주 기독교시민/박종현목사 ② 어떤 작은 교회인가?/이진오목사 ③ 개 교회주의의 극복/정성규목사 ④ 건강한 교회 만들기/박성진목사
8	2013.10.20	더함공동체 교회	개혁교회네트워크	구월여자중학교 강당/교회	교회, 다시 보기	[연합예배 주제설교]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한완상장로 ① 돈에 갇힌 교회, 성공에 매인 성도/박득훈목사 ② 성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신홍식장로 ③ 건강함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보편적 가치/최우돈장로 ④ 'The 작은교회로 분립하기/황영수집사 ⑤ 수평적 교회 이야기/김태민목 사 ⑥ 청년, 교회 개혁을 말하다/이진오목사





## 예인교회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

- 발행인 세미나 준비팀(안홍휘<sup>팀장</sup> 권정민<sup>서기</sup> 김형건 노주희 서미혜  
이동환 정광식 정기환 황영수)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44-4 가나베스트타운Ⅲ 412호
- 연락처 032)328-0692      ■ 홈페이지 [www.yein.org](http://www.yein.org)
- 제13기 운영위원회 정재준<sup>위원장</sup> 정광식<sup>서기</sup>  
김남권 장호철 한경순 홍왕기 황영수
- 교역자 정성규 안태훈<sup>편집</sup> 이정한

Copyright© 2002 예인교회 All Rights Reserved.